공동체 소식

대림 제4주일

주님, 천사의 아룀으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수난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 주소서.

▣ 12월 기도지향

+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냉담자들의 가정을 위하여
+ 예비자 교리를 준비하고 있는 가정들을 위하여

▣ 대림시기 안내

- 대림시기는 구세주이신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것을 기다리며 회개와 속죄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 홀리 트리니티 본당 신부님의 성탄절 선물에 감사합니다.

▣ 소공동체 봉사자 모임 (구역장 반장 모임)

- 일시: 12/18(주일) 미사 후.
- 장소: 본당 나자렛 교육관.

▣ 예수 성탄 대축일 미사와 행사 안내

- 12/20(화) 평일미사 오후07:30, 12/22(목) 미사 없음.
- 12/24(토) 오후 07:30 - 구유경배 예절 및 밤 미사 (매일미사 121쪽).
- 12/25(주일) 오전11:00, 낮 미사 - 성탄선물 봉헌 (매일미사 135쪽),
  미사 후 성탄잔치 - 음식나눔 잔치와 선물나눔 행사).

▣ 예수 성탄 대축일(12/25)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1/1) 애찬조

- 성탄절: 행사 1조, - 1/1 대축일: 행사 2조.

▣ 성탄절 선물 나눔

- 방법: 12/25(주일) 미사 중 봉헌, 미사 후 나눔.
- 유아 및 학생들을 위한 선물기증: 김호원 요한 전회장.

▣ 2017년도 매일미사책을 주문 바랍니다.

- 안내: 자세한 사항은 전례부 봉사자들에게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교무금과 건축보수기금의 완납을 위해 성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례 성가

시 작	예 물	성 체	파 견
91	212	167	97

▣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향 복사
금 주	문예나 요안나	문호진 안토니오
	김정원 안젤라	이원준 요한
10/24 (토)	정예찬 미카엘	문호진 안토니오
	정예진 한나	김준영 요셉
10/25 (일)	차민서 임마누엘	문호진 안토니오
	김정원 안젤라	고평원 프란치스코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김대연 요셉	감영진 라파엘
		한춘희 라파엘라
10/24 (토)	정수한 베드로	김병철 베네딕도
		김경희 스콜라스티카
10/25 (일)	최은미 아네스	김정원 베드로
		김말자 세실리아

▣ 애찬 봉사자

금주	조경희, 김계숙, 유수경
차주	성탄절 잔치, 행사 1조.

▣ 헌금 봉사자

금주	김태중 예레미야, 문석찬 요셉
12/24,25	정수한 베드로, 김대성 사도요한

▣ 우리들의 정성

	영성체	헌금	교무금
12/11	72명	334불	1,260불
(총 3세대)			
건축헌금	지난주 합계: 400불, 총합계: 9,400불		

대림 제4주일 |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2코린 4,18- | 2016년 12월 18일

미사시간
주 일: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10:00 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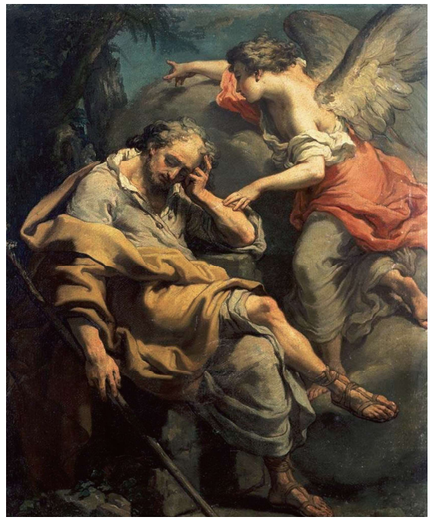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 김대연 요셉 812.272.4770 moss0106@gmail.com

주임신부 홍 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오늘의 전례

오늘은 대림 제4주일, 대림초 네 자루에 모두 불을 밝힙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준비해 온 우리 마음도 촛불처럼 환하게 빛납니다. 길을 떠나, 유다 산악 지방의 한 고을을 찾아간 마리아께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으신 분!"이라고 한 엘리사벳의 외침이,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도록 성모님의 굳센 믿음을 본받읍시다.

성화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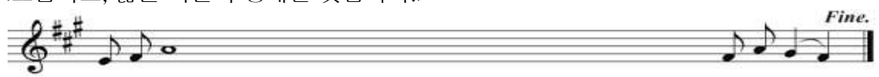
요셉의 꿈 (가에타노 간돌피, 1790년 경, 유채, 개인 소장)

요셉은 구세주 탄생의 가장 훌륭한 조력자였습니다. 임신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고(마태 1,24 참조), 구세주 탄생의 증인이 되었으며, 위기에 처한 성모자를 정성껏 돌보고 생명을 지켜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강생과 하느님의 인간구원 역사의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굳은 믿음으로 하느님 말씀에 순명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요셉과 같은 굳은 신앙과 부성애로 무장한 아버지들이 온갖 위기에 처한 가정과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영현 시몬 신부

제 1 독 서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7,10-14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할 것입니다.>

화 답 송 :



◎ 주님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임금님이시다.
○ 주님의 것이라네, 온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들, 온 누리와 그 안에 사는 것들.
그분이 물 위에 세우시고, 강 위에 굳히셨네. ◎
○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랴?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으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결백한 이, 헛된 것에 정신을 팔지 않는 이라네. ◎
○ 그는 주님께 복을 받으리라. 구원의 하느님께 의로움을 얻으리라. 이들이 야곱이라네.
그분을 찾는 세대, 그분 얼굴을 찾는 세대라네. ◎

제 2 독 서 :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1,1-7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 알렐루야.

복 음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18-24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시리라.>

쉐 마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마태오 복음사가는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모두 이루어졌음을 증언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 구약성경을 더 자주 인용합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오는 마리아가 동정으로 예수를 잉태하게 된 것을 두고 1독서에서 봉독된 이사 7,13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힙니다(마태 1,22-23).

여기서 인용된 이사 7,13에 따르면 젊은 여인이 아이를 잉태할 것이며, 아이의 이름이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곧 임마누엘이라 불릴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젊은 여인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알마'인데, 칠십인역 그리스어 성경이 이를 '파르테노스', 곧 처녀(동정녀)라고 번역합니다. 마태오는 칠십인역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사 7,13의 예언이 드디어 이루어졌다고 증언합니다.

이사야에 따르면 이 아이는 "나쁜 것을 물리치고 좋은 것을 선택할 줄을 알게 될 때" 엉긴 젖과 꿀을 먹게 될 것이었습니다(이사 7,14-17). 여기서 엉긴 젖과 꿀은 풍요로움, 곧 메시아 시대, 메시아를 통해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을 상징합니다. 아이의 탄생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들어가고자 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메시아를 통해 도래하게 될 약속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표징입니다. 곧, 하느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심이 드러나는 표징입니다.

사실,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였을 때에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아람과 손을 잡고 자신들이 이끄는 반 아시리아 연합 전선에 동참하지 않으려던 남쪽 유다 왕국을 치러왔을 때였습니다. 이사야는 그들을 괴롭히던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 아시리아에 의해 철저히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이사 7,17), 그 표징으로 아이가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아이는 아하즈의 아들 히즈키야였으며 이사야의 예언처럼 기원전 722년경 히즈키야 임금 시대에 이스라엘과 아람은 아시리아에 의해 철저히 파괴됩니다.

그런데 마태오 복음사가는 이 예언이 예수에 관한 예언이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히즈키야 임금 시대 때 다시 회복된 약속의 나라는 얼마 지나지 않아 철저히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이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파괴될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존속할 나라입니다. 마태오에 따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하느님의 통치가 시작되는데, 동정녀에게서 아이가 탄생하게 된 사건은 이사야가 예언한 약속의 땅, 곧 하늘 나라가 드디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표징이었습니다.

2독서의 사도 바오로 역시 이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과 부활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것으로, 하느님께서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심을, 하늘 나라가 도래했음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로마 1,2).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복음, 곧 하느님께서 밝혀주신 기쁜 소식이며, 바오로 사도는 자신이 이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직의 은총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바오로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직의 은총을 받은 이들입니다.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야말로 이사야가 예언하던 메시아이시며, 그분을 통해 하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믿고 고백하며 선포하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오로처럼 주님의 탄생, 죽음과 부활에 대한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림시기를 맞아 특별히 세상 모든 이가 하나같이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세상 마지막 날이기 때문입니다.

대림 마지막 주간을 지내면서 다시 한 번 주님의 날, 곧 하느님의 통치, 하늘 나라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잘 준비하도록 합시다.

- 염철호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주춧돌

우리를 치유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래아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에서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 주셨습니다. 그분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갖가지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들과 마귀 들린 이들, 간질 병자들과 중풍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셨나요?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마태 4,23-25**

어느 날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행 앞에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그녀를 패대기 치고는 큰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선생님, 모세의 법에 따르면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은 돌로 쳐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고 똑똑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나요?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요한 8,1-11**

예수님은 겐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호수를 건너 겐네사렛 땅에 이르러 배를 대었습니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은 곧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지방을 두루 뛰어다니며 병든 이들을 들것에 눕혀,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곳마다 데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마을이든, 고을이든, 촌락이든, 예수님께서 들어가기만 하시면 장터에 병자들을 데려다 놓고 그 옷자락 술에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 주십사고 청하였습니다. 그것에 손을 댄 사람은 어떻게 되었나요?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마르 6,53-56**

예수님께서 불쌍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은 인간적인 연민뿐 아니라 복음적인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고통과 그 고통에 대한 체념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적인 치유는 바로 이러한 신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살렸다"는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소중하게 하신 일은 무엇보다도 주변의 사람들 속에 있는 그 믿음을 일깨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만이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믿음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 글 허영엽 신부 | 그림 임의준 신부 -

복음묵상

마음 돌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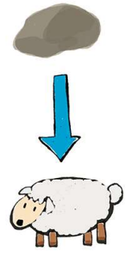
이미 결심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돌처럼 마음을 굳혔다 하더라도

양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시 돌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욕심도, 부정도, 부패도,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는 것도

사랑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마태 1,24)

- 임의준 신부